

28 반도체 가공 및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성별	여성	나이	50세	직종	반도체 생산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는 34세 되던 해에 반도체 가공 및 조립회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6년 7개월 동안 ○○지역 FVI공정(7년 11개월), ○○지역 SBA공정(3년), ○○지역 테스트 공정(5년 8개월)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에 침윤성 유방암(Invasive carcinoma)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작업시간은 4조 3교대로 구성되며 Day(06시-14시), Swing(14시-22시), Night(22시-06시)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2008년 이전에는 3조 3교대였으며 Day, Swing, Night의 교대주기는 약 한 달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교대주기가 1주일로 변화였다.

FVI공정은 패키징이 최종완료된 제품의 외관 상태를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는 작업이었다. SBA공정에서는 이전단계에서 넘어온 자재를 확인하고, 기계에 로딩하면 기계는 PCB에 솔더볼을 붙이고, Melting단계로 이동시켜 열을 가하여 솔더볼을 녹인다. 이 때 Flux라는 접착제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공정에서는 완성품을 핸들러머신에 투입하고, 양품과 불량품이 분리되어 나오면 이를 분리하여 적재적소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기타 작업환경 요인(그 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흡연 및 음주력은 파악이 불가하였고, 과거 2차례의 제왕절개수술력이 있었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관련약물을 복용하였다. 특히 과거력도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의 상병과 관계있는 요인으로는 야간교대작업이 추정되나,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근로자의 야간교대작업 노출기간은 25년 미만으로 야간교대작업이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